

| 23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5405.75 | ↓ 코스닥 | 1096.89 |
| | (-375.45) | | (-64.63) |
| ↑ 금리 (미국 3년) | 3.617 | ↑ 환율 (원/달러) | 1514.25 |
| | (+0.207) | | (+13.65) |

metro 경제

산업부
"UAE원유·비축유 방출
원유수급 문제없어"
02



고·고 여파, LCC 직격 노선 중단·감편 '비상'

업계 전반 긴축경영 확산

이란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 여파가 항공업계를 직격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아 티웨이항공이 전사 비상경영에 돌입한 데 이어 에어부산·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까지 국제선 운항 조정에서부터 긴축 경영 기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 국제선 일부 노선 비운항 계획을 공지했다.

업계, 내달 발권 유류할증료 인상
에어부산 내달 다낭·세부·괌 노선
수·목요일 중심 왕복편 14회 감편
에어로케이 4개 국제노선 비운항
티웨이 전사 '비상경영 체제' 돌입

대상은 부산발 다낭·세부·괌 노선이다. 부산~다낭 노선(BX7315·7325)은 4월 21일·24일·28일 운항이 중단되며 27일 일부 운항편도 조정된다. 부산~세부 노선(BX711·712)은 27~28일 이틀간 운항이 중단된다. 부산~괌 노선(BX614·613)은 4월 8일과 30일을 포함해 수·목요일 중심으로 총 14회 왕복편이 감편된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도 4~6월 청주발 클락·울란바토르 등 국제선 4개 노선에 대한 일부 비운항 계획을 안내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용 구조와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투자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과 투자는 조정·보류하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도 운항 조정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비운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감편과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항공사들은 리스료·유류비·보험료 등 전체 비용의 70~80%를 달러로 결제하는 데다, 항공 연료비도 통상 전체 비용의 20~30%를 차지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3일) 세계 평균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416.67센트로 전달 평균 대비 82.8% 급등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1424.5원에서 1499.7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오는 4월 발권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에어로케이는 기존 1만6600원~3만4600원에서 4만3700원~9만원으로, 티웨이항공은 1만300원~6만7600원에서 3만800원~21만3900원으로 올랐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진에어도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했다. 다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으로 비용 상승분을 운임에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재무 여력도 넉넉하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티웨이항공이 300%를 웃돌고,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은 800% 안팎, 진에어는 400% 초반 수준이다. 대형항공사(FSC)보다 유가·환율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필요성마저 거론한다. 일부 LCC들은 항공유 가격 급등 대응책으로 비축유 활용 등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구체화한 지원책은 없으며, 정부는 업계 지원보다 소비자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4월 기간 중 일부 노선 감편 운항을 시행하게 됐다"며 "여정 변경 및 환불 등 고객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코스피 중동 전쟁 확산 공포에 5400선까지 하락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781.20)보다 375.45포인트(6.49%) 내린 5405.75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1.52)보다 64.63포인트(5.56%) 하락한 1096.89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00.6원)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환율 1517원... 2주 증시 '블랙 먼데이'

코스피 6.49% 하락 5405.75 마감
주가 급락에 한때 '매도 사이드카'
삼전 6.57%, 하이닉스 7.35% 하락

중동 전쟁 확산 공포가 고조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 환율은 17년 만에 달러당 1517원 선을 넘겼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9% 하락한 5405.75로 마감했다. 오전 9시경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올해들어 6 번째다. 일본 닛케이평균(-3.48%), 대

만 가권지수(-2.45%)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셱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아시아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지역 확산으로 유가가 오르면 기업 이익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기 쉽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주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웃돌던 삼성전자는 18만6300원(-6.57%), SK하이닉스는 93만3000원(-7.35%)에 마감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

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23일 오전 7시 전장 종가보다 1.9% 오른 배럴당 114.35달러까지 뛰었다.

환율도 연일 치솟는 양상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7조5000억 원 가량 팔아 치운 영향으로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오후 3시 30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장중 1561원까지 뛰어 올랐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美 최후 통첩에, 이란 "단호히 맞설 것" 맞불

트럼프 시한, 韓시간 24일 오전 9시경 이란 하르그섬 대규모 군사작전 시사

'시간 이틀 준다'라는 백악관발 최후 통첩에 이란이 맞불을 놓았다. 이에 중동전쟁이 끝내 미 해병 또는 육군의 이란 영토 진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23일 국내 자본시장 등의 주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게시한 글에서 "우리는 전장에서 광기 어린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맞섰다.

페제시키안은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상은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이란)의 의지와는 무관한 절박한 발악이다. 협박·테러는 우리의 결속력만 더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란의 맞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띄운 지 15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미동부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44분경(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 "이란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시 미국은 가장 큰 발전을 시작으로 이란의 각 발전소를 공격해 초도화하겠

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내건 시한은 23일 오후 7시 44분쯤(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이다. 이번 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하르그섬 등을 표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스티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해상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1억 4000만 배럴의 판매를 재무부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으로 흘러갈 물량을 시장에 풀어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의 자원을 역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오늘 오후 2시~5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관련기사 L8면)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현 공관위원장 "국힘 생존 갈림길...특정인 겨냥한 공천 안 해" /사진 뉴시스
▲홍준표 "주호영, 6선다운 태도 보여야...비명학 살 못 봤나"

▲윤택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퇴...피선거권 상실
▲김 총리,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자본시장 국제협력 강화

▲황중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국가필수선박 동원해 에너지 수송"
▲정청래, 노무현 묘역 찾아 "노장님, 검찰개혁 보고드린다"...권양숙 여사도 예방

“UAE 원유·비축유 방출... 4월 국내 원유수급 문제 없다”

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이달 말부터 순차적 도입 예정
카타르산 가스 비중 20% 미만
당장 가스공급 차질 크지 않을 것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례없는 상승 속도를 경고하면서도 4월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13.50달러, WTI는 99.98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 150달러를 크게 웃돌며 브렌트·WTI와의 가격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브렌트·WTI와 두바이유 간 가격 차이는 최근 수십 년간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두바이 가격에 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역사상 유례 없는 수급 위기’라고 평가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물류 차질은 현실화되는 모습이 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를 통과해 나오는 유조선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기 중이던 선박들이 흥해, 오만, 미국 등 다른 경로로 우회하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말~4월 초, 나머지는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4월 위기설이 있지만 대체 물량과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 비축유 방출도 공식화했다. 양 실장은 “민간 원유 재고와 대체 도입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출 시점을 준비 중”이라며 “4월 중에는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재고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정보라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스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양 실장은 “중동·카타르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미국은 셰일가스로 공급이 충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시설

등 공격 여파로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이 급등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카타르산 가스 비중이 20% 미만이어서 당장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스 시장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물류 여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3월 들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중동 노선 해상 운임은 2월 말 대비 150% 이상 급등했다. 산업부는 중동 리스크가 물류비 상승과 수출 감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실장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는 금융·결제·제재 리스크가 커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이라며 “대체 수입이 더 경제적인지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공급 부족으로 가동 중단 우려가 나오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 판단이다.

양 실장은 “초기에는 4월 초·중순 생산 차질을 예상했지만, 대체 납사 확보로 중단 시점이 4월 하순~5월로 늦춰지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 방출, 수출 제한, 수급 조정 등을 통해 석화기업에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나프타 수급 구조와 관련해 국내 사용 납사의 약 55%는 정유사 생산, 45%는 수입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대체 나프타 수입시 추가 발생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늘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며 “총 12명 규모로 약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품목의 불안이 과장되면 사재기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되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관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2분기 전기요금 ‘동결’... 하반기 인상 압력

한전, 인하 요인 뚜렷하지만
‘200조 부채’ 재무부담 고려

전력당국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묶어두면서 요금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4~6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

기요금은 12개 분기째 동결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역시 모두 직전 분기 수준이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되

는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된 상태다.

실제 산정 결과만 보면 인하 요인이 뚜렷했다. 최근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낮아 변동연료비가 마이너스로 계산됐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투입량까지 반영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kWh당 약 -11.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도상 하한(-5원)에 막혀 실제 인하 폭은

제한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것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루 이지만 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단행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9차 변경) 보상계획 안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2호(2011.11.03.)로 승인 고시 및 제2025-70호(2025.12.12.)로 변경 승인 고시되어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
|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 한국수자원공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남양읍 문호리 일원 | 2011.11. ~ 2030.12.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가.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추가 편입 토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및 남양읍 문호리 일원 33필지

* 금번 공고 및 보상지역은 실시계획 변경(9차)에 따른 변경 및 미보상 지역에 한함

나. 토지조서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http://songsan.kwater.or.kr>)에 공지합니다.

* 공고된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3. 24. (화) ~ 4. 9. (목) 09:00 ~ 18:00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보상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비봉로 388)
- 화성시청 건설과(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송산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매봉산길 12)

다. 열람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및 관계인임을 확인받은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라. 이의신청 : 열람결과 대상토지, 물건,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실보상 협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기준

- 대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2010.08.24.)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협의 양도한 자(신청자 토지 소유 자분 전부 협의 양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대토면적 :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에서 대토보상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급 가능하며, 1인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격 (상업용지는 감정가격×유사용지 평균낙찰률)으로 공급

* 『대토보상 세부기준』은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안내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라. 현재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 분할 전 기존 지번으로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가. 2026년 7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04.09.)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시 무효처리함

다. 공부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감정평가되며, 임야 등 토지에 자연림이 있는 경우 그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됩니다.

라. 토지 일부가 본 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중,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의 경우 영농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사업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보상액,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통지드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1) 전화 : 031-369-8320~2

2) FAX : 031-369-8309

2026. 03. 24

중동 변수에 흔들리는 코스피... 버블경고·단기 조정론 잇갈려

5405.75 마감... 6.49% 급락
5000·6000선 오간 롤러코스터
해외선 과열 경고 잇따르고
반도체 기대감 여전히 유효
장기 상승론 속 빗투 경계



ChatGPT로 생성. 코스피가 540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가운데, 변동성 장세와 반도체주 약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자영업자 김모(35)씨는 2021년 9만원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뒤 4년 넘게 수익을 못 내다가 지난해 말 '11만 전자'가 되자마자 팔았다. 안전한 '익절'(이익을 보고 매도)을 택한 건데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치솟자 결국 지난 17일 19만원대에 다시 샀다. 김씨는 "단타로 조금만 벌고 빠지려 했는데 주가가 출렁이니 걱정이다"면서 "'삼전' 트라우마에 또 다시 빠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 불안하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에 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 증시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에 비해 유독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성장과 고용 등 실물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이자 증시만 질주하는 현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중동 전쟁에 말미 나는 증시

23일 코스피는 5405.75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만 해도 6000선을 바라보던 시장이 '오천피'(지수 5000) 초반으로 밀렸다. 이날 하락폭은 6.49%에 달할 정도로 불안한 한국 증시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는 '전쟁'이 지배하고 있다.

코스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한때 6347.4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코스피는 관련 소식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반영된 이달 3일 7.24% 급락한 데 이어 이튿날인 4일에는 역대 최대 낙폭인 12.06%를 기록했다. 특기할 지점은 사흘째인 5일에는 9.63%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부딪히며

치열한 '시소 게임'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실적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5% 넘게 급등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나 싶었는데, 곧바로 이어진 세계 석유시장에서 유가가 급등하자 19일 코스피는 2.7%가량 떨어졌다.

코스피가 최근 한 달 사이 6000대와 5000대를 넘나드는 변동성 장세 속에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외국계 기관을 중심으로 "위험한 과열 상태"라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증시를 "전형적 버블 사례"라고 직격했다. 코스피는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4일 하루 만에 12% 급락한 뒤 다음날 곧바로 10% 가까이 폭등하는 등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BofA는 이 모습이 "1997년 외환위기와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나타난 극심한 불안정성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BofA의 자체 지표인 '버블 리스크 인디케이터'에서도 코스피의 거품 위험도는 '극단적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런 평가는 수치로 증명된다. 투자 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인 '버핏지수'는 현재 200%를 넘나든다. 통상 120% 이상이면 과열로 판단하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GDP)보다 증시의 덩치가 2배

이상 커졌다는 건데,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는 진단이다.

반면 국내 증권가는 대체로 낙관적이다. 최근의 급등락은 중동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코스피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인 '반도체 투톱(삼성전자·SK하이닉스)'이 탑승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다. 최

근 엔비디아연례개발자회의(GTC)에서 이 두 회사와의 협력이 다시 부각되고, 반도체 기대감이 반영된 마이크론 실적 호조,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계획 등도 강세 전망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 분기 대비 61% 증가한 132조원으로 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은 추가 급락 가능성보다는 시장 지수 헤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실적주 등 개별 종목 장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상승장, 빗투 경고에는 귀 기울여야

최근 대형주들이 하루에 5% 이상 오르내리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초단기 '사고 팔기'가 집중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6.57% 내려 '19만 전자'가 깨졌고, 2위 SK하이닉스도 7.35% 하락해 93만3000원에 마감했다.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경우 코스피는 7500~850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 분야 한국 자본시장 개혁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기업들이 실행 단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적 개선 종목과 중동 전쟁 수혜주 중심의 투자가 유효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형 EPS 상승 및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운송, 철강, 유틸리티, 조선, 보험, 화장품 업종 등을 주목한다"며 "조선, 기계, 유틸리티, 운송, 철강 등은 중동 변수에 수혜주로 평가받는 업종"이라고 밝혔다.

다만 빛을 내더라도 투자하겠다는 빗투 양상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공급가뭄에 봄비 될까 전국 1.6만 세대 입주

내달 입주물량 전월비 34.8% 늘어
서울 1121세대,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

다음달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면서 공급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지방에 비해 서울은 입주 아파트가 적어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기는 당분간 강보합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다음달 입주물량이 집중돼 잔금을 치르기 위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4월 입주물량은 1만 6311세대로 집계됐다. 전월(1만 2098세대) 대비 34.8%나 늘어난 물량이다. 전년 동기(1만 4763세

대) 대비로도 10.5%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193세대, 지방이 8118세대가 입주한다. 특히 지방은 전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며 전국 입주 물량 증가를 이끌었다.

서울은 총 3개 단지에서 1121세대가 입주한다. 경기지역은 4개 단지에서 총 5224세대가 입주한다. ▲의정부시 1816세대 ▲광주시 1690세대 등이다.

인천은 4개 단지에서 1848세대가 입주한다. 신검단중앙영디에트르더에듀(AA 20BL)와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틸 등 검단 신도시 내 공급이 집중된다.

지방은 총 8118세대 9개 단지가 입주한다. ▲광주광역시 4029세대 ▲대구광역시 3289세대 ▲충청북도 800세대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교보생명 이웃사랑이야기 '황제펭귄' 편

생명보험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껴안고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생명보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KYOBO 교보생명

K-전자부품사, 성장축 이동... '스마트폰 → AI·전장' 재편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2.9% ↓
LG이노텍, 非 모바일 사업 확대
새로운 사업에 '피지컬 AI' 제시
삼성전기, 사업구조 전환 공식화
MLCC 중심 AI 서버용 등 확대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이 23일 제 50기 주주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2026년 경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기

국내 전자부품사들의 사업 중심이 스마트폰 중심 모바일에서 인공지능(AI) 서버와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이 여전히 실적을 떠받치는 핵심 사업이지만 시장 성장 둔화와 고객사 협상력 변화, 가격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부품사들이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23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1억2000만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둔화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완성품 업체의 부품

단가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이노텍의 경우 모바일 의존 구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고객 매출은 17조748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1%를 차지했고, 광학솔루션 매출은 18조3184억원으로 전체의 83.6%에 달했다.

이에 LG이노텍은 모바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非) 모바일 사업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G이노텍은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고부

가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전장과 기관 등 신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기존 주력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성장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분야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제시하며 성장 방향을 구체화했다. LG이노텍은 해당 사업이 초기 양산 단계에 진입해 일부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로봇과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문 사장은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관과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서버용 FC-BGA 등 고부가 기관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의 증설을 추진 중이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기는 사업 구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서버, 전장,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은 27%로 나타났다. 2021년 주요 고객 비중(약 39%)과 비교해 낮아진 수치로, AI 서버와 전장 등

비모바일 매출이 확대되면서 특정 고객 의존도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기는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AI 서버용 고용량 제품과 전장용 고신뢰성 부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서버용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MLCC 가격 인상이 실제 계약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다. AI 서버 중심 수요 확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전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부품사들이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장과 AI 관련 부품 사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수익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존 모바일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확보하면서 신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생명

고객을 위한 한화생명의 세심한 통보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12:32

● 한화생명 알리미

원하는 보장을 더 촘촘하게!

총 121개의 선택 특약으로

내게 맞는 보장을 완성하세요! ✓

카티라이프 수술

특정순환계 질환

암주요치료

*해당 특약 가입 시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간편가입형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카티라이프수술보장특약]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카티라이프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보장특약]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암주요치료보장특약(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연1회)] 간편가입형의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암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1234호 (2026-02-12 ~ 2027-02-11)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6-02-013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 상담 번호: 080.365.6363

'복합위험 대응형' 신현송 금리보다 금융안정 도모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 BIS "은행·국제금융·통화경제학 리더" 단순한 '매파·비둘기파' 구분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하면서, 한은 수장의 무게중심이 기준금리의 단선적 방향보다 금융안정과 대외충격 대응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후보자는 BIS에서 글로벌 유동성·금융안정·통화질서 변화를 다뤘은 국제 거시금융 전문가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매파·비둘기파' 구분보다 복합위험 대응형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신 후보자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BIS에서 경제 연구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보좌관이자 통화경제국장으로 일해 왔다. BIS는 그를 "은행, 국제금융, 통화경제학 분야의 지적 리더"로 소개하고 있으며 "프린스턴대 교수와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경력을 거친 학자이자 정책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다. 실제 그의 문제의식은 오랜 기간 금융

안정과 달러 유동성, 자본흐름 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BIS 연설에서 "달러 강세가 은행의 위험선호를 약화시킨다"며 금융여건을 긴축시키는 경로를 짚었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 누증의 위험을 꾸준히 경고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과잉 차입 위험에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경제학자란 분석이다.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한국 경제와 맞닿아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22년 BIS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이다"면서도, "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금리 상승이 수요를 빠르게 식히고 금융안정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만이 아니라 긴축의 부작용과 금융시스템의 '균열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번 인선을 '매파 총재' 한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신 후보자의 강점은 금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성향론보다, 물가·성장·가계부채·환율·자본흐름이 한꺼번에 얽힌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충격 전이 경로를 입체적으로 보는 데 있다. 그는 2013년 NBER 공동 논문에서 지난 2010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설계에 관여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어, 한국형 금융안정 정책과도 실질 접점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金融報國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의 처음은
‘나라를 위한 은행’입니다

신한에는 창업부터 이어온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그 중 첫째가 '나라를 위한 은행'입니다

AI시대, 창업의 정신 그대로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로
금융보국의 책임을 이어 갑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박홍근 청문회 ‘무난 통과’ 전망... 쟁점은 추경·재정개혁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약 25조 규모 추경안 주요 사안 “답다운 예산제도·지출 구조조정 고유가에 에너지 절감 등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의혹 제기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만큼, 청문회에서도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이력이나 선거공보물 표기 논란 정도가 제기됐다. 오히려 청문회의 주요 이슈는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었다.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도덕성 검증 공방이 아닌 추경 편성 등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공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기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

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다”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답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세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기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추경 재원 질의에 대해선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국제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 설계 방향에 대해 “정부 추경안은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에서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예측되지 않는 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국내의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뭔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 구조의 ‘깜깜이’ 관행과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편성 단계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

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립,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야권에선 박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당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이라고 잘못 기재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면서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 중 장관 지명을 받아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당정청,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처리

고유가 대응·취약 계층 지원 초점 법인세 등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

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속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쟁 추경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물 및 민생부분과 관련해 전쟁 추경을 신속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직접·차등지원 통해 취약 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추경안을 발표하고 내주 국회 제출, 내달 10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3일(추경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4월6일쯤 종합정책질의 이후 10일에(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제출·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두 달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당초 전망(15조~20조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5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될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중 2022년 5월(52조4000억원)과 2021년 7월(31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 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적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 기자

달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이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당초 전망(15조~20조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5조원으로 규모가 확정될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중 2022년 5월(52조4000억원)과 2021년 7월(31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 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적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예진 기자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3-02호]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연장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1) 사업의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9,816.70㎡
2. 건축심의 내용(시행령 제 24조 제4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건축물의 주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3층 ~ 지상 14층) 2) 대지면적: 8,452.10㎡(실사용 면적)
3) 건축면적: 2,856.4079㎡ 4) 건축연면적: 34,210.3897㎡ 5) 건폐율: 33.80% 6) 용적률: 232.61%
7) 높이에 관한 계획: 지하 3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로 2M, 인접대지 3M 이격
9) 공동이용시설: 1,943.0874㎡
3. 분양신청 연장 기간: 2026년 03월 25일(수) ~ 2026년 03월 31일(화)까지(7일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로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임대주택 제외)

| 구분 | 유형 | 세대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비고 |
|------|-------|---------|------------|-----------------|------------|---------|
| 공동주택 | 40 | 5 | 40.53㎡ | 16.48㎡ | 57.01㎡ | 17.25평형 |
| | 49 | 20 | 49.60㎡ | 20.53㎡ | 70.13㎡ | 21.21평형 |
| | 54 | 12 | 54.66㎡ | 21.97㎡ | 76.63㎡ | 23.18평형 |
| | 59 | 45 | 59.87㎡ | 23.99㎡ | 83.86㎡ | 25.37평형 |
| | 74 | 36 | 75.00㎡ | 29.23㎡ | 104.23㎡ | 31.53평형 |
| | 84 | 53 | 84.87㎡ | 32.58㎡ | 117.45㎡ | 35.53평형 |
| | 102 | 8 | 102.08㎡ | 39.29㎡ | 141.37㎡ | 42.76평형 |
| | 합계 | 179세대 | 12,559.30㎡ | 4,929.82㎡ | 17,489.12㎡ | - |
| 근린 | 유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비고 |
| | 지상 1층 | 147.35㎡ | 21.97㎡ | 198.73㎡ | 368.05㎡ | 111.34평 |
| | 합계 | 147.35㎡ | 21.97㎡ | 198.73㎡ | 368.05㎡ | 111.34평 |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반영) 기준이며, 향후 관리처분 및 인허가(변경포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신청 자격: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8.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지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10. 이주 및 철거 예정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이주 기간에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인사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2026년 3월 24일]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 석 (직인 생략)

李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강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안보’라고 불린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

국힘 서울·대구 경선 컷오프 후보들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6·3 지방선거 서울 시장과 대구시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공천 배제(컷오프)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 경선 대상자를 총 6명의 후보자 중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강남을),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서울성북을 당협위원장,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3명은 컷오프됐다.

앞서 공관위는 전날 대구시장 공천에 접수한 예비후보 9명 중 6선 현역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를 컷오프했다.

하지만 ‘기습 컷오프’에 주호영 부의장과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예진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금리를
업

포인트로
터

우리은행 | SAMSUNG Wallet

세상에 업턴 혜택의 기술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최고 금리 연 3.5%**
[기본 연 0.1%, (2026.03.10 기준, 세전),
최고 금리 한도 2백만원]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최고 금리 연 7.5%**
[기본 연 2.5% (2026.03.10 기준, 세전)]

삼성월렛머니 결제 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연결하면
최대 11% 포인트 적립
[조건 충족 시], [추가 적립 이벤트 기간
(2026.03.13~2026.04.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 가입채널: 우리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우리MON뱅킹
- 대상: 14세 이상 실명인 개인 (내국인, 외국인)
* 단,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이 어려워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만 상품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최고 연 3.5% - 기본 연 0.1% (최대 200만원까지, 2026.03.10 기준, 세전)
- 특징: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연결 시 우대금리 제공
기본금리: 연 0.1%
우대금리: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연결 유지 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아래 기간 동안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를 제공함. 가입 후 3년 초과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음
o 가입 후 1년 이내: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연결 유지 시, 연 2.4%p
* 단, 2026.03.30까지 가입 시, 연 10%p 특별금리 추가 제공
o 가입 후 3년 이내: 삼성월렛머니 연결 유지 시, 연 0.9%p
- 이자지급시기: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날(월요일)에 원금에 다함
- 이 계좌에 입유, 가입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상품명: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가입채널: 우리MON뱅킹
- 대상: 실명인 개인 (19세 이상)
- 금액: 월 3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 가능)
- 계약기간: 6개월, 12개월
- 금리: 최고 연 7.5% - 기본 연 2.5% (2026.03.10 기준, 세전)
기본금리: 연 2.5%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5.0%p 제공

o 연 2.0%p: 적금 신규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일까지 우리은행 본인 입출식통장을 통해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선불충전 3회 이상 (단, 월1회만 인정)
o 연 1.0%p: 만기해지 시까지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보유고객
o 연 2.0%p: 직전 6개월간 우리은행 예금적금정기보유고객
* 단, 우대이율은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등의 항목 중 연회(휴대폰)나 SMS 중 하나 이상 동의 후 만기해지시점까지 유지된 경우 제공되며, 계약기간 만기 전 종료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하며, 계좌에 입유/가입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함
- 중도해지 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 적용함
- 예상 수취 이자액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자료는 예시 자료로, 세부사항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월 30만원, 적용금리 연 7.5% (최고금리), 계약기간 12개월 가정 시 총이자(세전) 146,250원
o 월 30만원, 적용금리 연 7.5% (최고금리), 계약기간 6개월 가정 시 총이자(세전) 39,375원

<상품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o 이 예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년당 "약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6-05812호(2026.03.12.~2027.03.1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2002(2026.03.10.~2026.06.30)

<적립 안내>
- 삼성월렛머니 안내
- 삼성월렛머니는 삼성 월렛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결제수단입니다.
- 삼성월렛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의 연결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충전금액은 2만원이며(미성년의 경우 1만원),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1만원 단위로 자동충전됩니다.

- 적립 혜택 산산는 토요일은 월렛머니에 최대 11% 포인트 적립
- 기본 적립: 온라인 15%, 오프라인 0.5%
- 추가 적립 * 기간: 2026.03.13(금) ~ 2026.04.30(목)
o + 15%: 우리은행 계좌를 주 사용 계좌로 설정 후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75만원 (결제 건당 최대 15만원)
o + 30%: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주 사용 계좌로 설정 후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만원 (결제 건당 최대 1만원)
o + 5.0%: o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
* 최대 적립 금액: 2만원 (결제 건당 최대 1만원)
* 추가 적립 o: o은 모두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 사용 계좌 설정 방법 ★: 전체 > 내 지갑 > 더니. 포인트 > 연결된 계좌 > 주 사용 계좌 설정
* 추가 적립 o: 2026.3.6 조기 종료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 시즌 3]에서 이미 본 이벤트의 최대 적립 한도만큼 혜택을 받으신 고객님은 이번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안내 사항
- 본 이벤트는 예산 소진 등의 내부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및 우리은행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은행 삼성 월렛 고객센터(☎1544-8484, 이용안내시간: 평일(09-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 바랍니다.



이벤트 바로가기

IFRS17, 생보사 이익 키웠지만... '보장성 쓸림' 성장성 악화

신계약 늘었지만 보험료 유입 더뎠다
지난 2024년 초회보험료 38% 상승
수입보험료 전년비 0.9% 증가 그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를 앞세워 이익을 키웠지만, 산업의 성장성과 자본 체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계약은 빠르게 늘었어도 전체 보험료 유입과 미래이익 축적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고, 지급여력 부담까지 커지면서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체제에서 생보사들이 보장성보험으로 쏠린 배경에는 회계상 수익성 차이가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CSM) 배수는 13.7~22.4배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0.3~2.0배 수준에 그쳤다.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에서 연금보험 비중이 크지만, 낮은 마진 탓에 상품 포트폴리오 내 존재감은 줄었다.



Chat GPT가 생성한 IFRS17 도입 후 생보사 체력 저하 이미지.

업권 실적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2024년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5조6374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지만, 보험손익은 4조2625억원으로 15.7% 줄었다. 반면 투자손익은 3조248억원으로 80.6% 급증했다.

같은기간 생보 수입보험료는 113조4400억원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변액보험

보험료는 늘었지만 퇴직연금 등은 26.2% 감소했다.

문제는 신계약 확대가 산업 전체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202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0.9% 늘었지만 초회보험료는 37.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0~2021년 119~120

조원 수준이던 수입보험료는 2023~2024년 112~113조원대로 낮아졌다. 반면 초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10조~12조원에서 14조~19조원으로 커졌다.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신계약은 늘었지만 보유계약 해지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유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미래이익 증가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생보업계 CSM 잔액은 2022년 말 55조6000억원에서 2024년 말 62조4000억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그쳤다. 신계약 유입 13조7000억원에도 해지율 가정 변경 7조5000억원, 물량 차이 5조5000억원이 반영돼 증가폭이 제한됐다.

건전성 부담도 커졌다. 2024년 말 생보사 자본은 82조1000억원으로 1년 만에 20조원 넘게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익잉여금은 늘었지만,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8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같은기간 요구자본은 2조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이 4

조1000억원, 장해·질병위험이 1조9000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가 위험자본 부담 확대에 이어진 구조다.

당국도 새 제도 아래 자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췄다. 금융위는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노연업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시행 이후 생명보험산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제한적이고 보험계약마진은 해지율 가정 변화와 물량 요인에 취약한 모습"이라며 "지급여력비율은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와 보험위험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청년·취약계층 위한 미소금융 2배 공급

금융위,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청년미래이음·생계자금 대출 신설
미소금융 규모 3000억→6000억 확대

정부가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 3000억원에서 연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하고,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미소금융의 창의적 경쟁을 위해 미소재단의 자율적인 자원 활용 방안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취약계층·지방 등 미소금융 공급이 절실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연소득이나 신용평점 등 정량적 중심의 운영으로 금융이력이 모자란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효적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 또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 지원이 충분한 지원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여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경제의 혈액으로, 혈액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라며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연 4.5% 내외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단별로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분기·반기별 공시를 통해 목표 달성을 구체화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IBK기업은행, 혁신기업 발굴·성장지원

AI 활용 '신기술평가시스템' 구축

IBK기업은행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혁신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신(新)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기술기업

지원에 앞장선다고 23일 밝혔다.

'신(新)기술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기술력·고용·R&D 투자 등 빅데이터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계량화하는 미래성장모형을 핵심 동력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은

재무 실적이 미흡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높은 혁신 기술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부정보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해 기업의 기술경영 성과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특허·R&D성과 등 기업성장 DB를 구축해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컨설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국토부, 공사비 산정 노하우 알려준다

27일 강남 건설회관에서 설명회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정 공사비 반영이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만큼, 발주자와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예정 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 및 규정, 기준 제·개정 절차,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올해 개정된 기준의 주요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사항도



지난 12일 경기 구리시의 한 기중기 주차장에 기중기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공사비평가관리센터를 통해 접수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석 혼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진다.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비평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KB국민은행, 수출입기업 외화대출 확대

분쟁지역 기업, 수수료·환율 우대

KB국민은행은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화대출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관련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외화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운영 범위를 국내 운전자금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의 수출실적 범위 이내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중동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외환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및 협력사로 수입 신용장 개설, 해외 송금 등 무역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영업현장에서 수출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금융 전문가인 SME 지점장과 수출입 전문 마케터들이 수출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제도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대한민국 산업 기반인 수출입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적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피지컬 AI 로봇으로 사업 확대 액추에이터 양산·공급 본격화”

LG전자 제24기 정기 주총

류재철 사장, 미래사업 방향 제시 액추에이터 직접 설계·생산 추진 데이터·학습 강화, 빅테크 협업 확대 B2B·플랫폼 육성 2030 성장 청사진 AX로 2~3년 내 생산성 30% 개선

“올해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및 공급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23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로봇 사업에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데이터와 학습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도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 사장은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구성품인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 생산해 전 세계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는 기업 간 거래(B2B) 부품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고도화된 가전용 모터 기술력과 연간 4500만 대 수준의 양산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로봇 타입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류 사장은 LG전자가 그간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공간을 연결하는 ‘솔루션 컴퍼니’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를 활용한 홈 메뉴팩처링 및 스펙트럼 체인을 통해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고 제조 원가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는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B2B 플랫폼, 다이렉트 투 에브리씽(D2X) 등 조직 육성 사업에 대한 집중도 강조했다.

류 사장은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등의 B2B 사업과 더불어 광고·콘텐츠·구독 및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플랫폼 사업에 투자 재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관련 투자비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매출은 1.7배, 영업이익은 2.4배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 브라질 등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집중 육성해 해당 지역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임직원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언급했다.

그는 “AX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핵심 도구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해 2~3년 내에 생산성 30%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자기주식 소각,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은 1350원으로 지난해 1000원 대비 약 35% 늘었다. 우선주는 1400원으로 전년 1050원보다 증가했다.

또 과거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6442주(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는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정관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사로는 류재철 CEO가 신규 선임됐고,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7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80억원 대비 축소된 수준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차량서 집 안 가전 제어

삼성 스마트싱스 연동 ‘카투홈’ 선보

현대차·기아와 삼성전자가 상호협력 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제공되던 홈투카에 이어 카투홈을 새롭게 내놓으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홈투카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공조·시동·문 잠금 및 해제·전기차 충전 시작·중지 등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현대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서비스 이용 고객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스마트싱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해 계정을 연동하는 것으로 손쉽게 카투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투홈 서비스는 단순히 원격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 외출 순간부터 이동 중, 귀가 이후까지 생활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사용자 경험 전반을 끊임

없이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외출 시에는 자동으로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귀가 시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을 작동시키는 등 운전자의 이동 상황에 맞춰 집 내부 환경을 최적화하거나 개인화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판매 차량 중인 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현대차·기아 차량에서 순차적인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업데이트 가능 모델은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향후 ccIC27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제네시스 차종까지 지속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단순한 원격 제어 기능을 넘어 차량과 집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첫 단계”라며 “모빌리티를 스마트 홈의 허브로 확장해 앞으로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고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전격 회동

전영현 부회장과 1시간30분 면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과의 전격 회동이 이뤄지며 교섭 재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강경 투쟁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이 일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 이날 오전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약 1시간 30분가량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이재용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측이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자회견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대화에 응했다.

노조 측은 “전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측 역시 교섭 재개 의지를 밝히며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섭 재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와 성과급 지급 기준의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를 포함해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하지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영현 부회장도 DS부문 내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다음 달 집회를 이어가며 성과급 정상화와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차현정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큐브위성 AI실증 추진

스페이스린텍·연세대와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일 우주 의학 전문기업 스페이스린텍과 ‘큐브위성 인공지능(AI)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I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AI 모듈을 스페이스린텍과 연세대가 공동 개발 중인 큐브위성 플랫폼에 탑재해, 우주 궤도상에서 위성의 이상 상태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해당 AI 모듈을 탑재한 큐브위성을 발사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은 AI 온보드 프로세싱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상국에서 고장 신호를 위성으로 송신하면 AI 모듈이 이를 감지해 고장 원인과 범위를 예측하고, 최적 대응책을 도출해 기술 보고서를 생성한 뒤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위성이 지상 개입 없이 스스로 이상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완전 자율 운영 위성’ 구현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 에어드롭식 파일공유 확장

갤S26부터 퀵쉐어 호환 범위 확대 타 기기·OS 연동 연결성 경쟁 강화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가 애플의 근거리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과 연동되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동안 갤럭시 기기 중심으로 제한됐던 파일 공유를 외부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모바일 생태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시작으로 파일 공유 기능의 호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퀵쉐어(Quick Share)’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일부 PC 간 전송에 한정됐지만, 향후 다양한 운영체제(OS)와 기기 간 파일 전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이다.

퀵쉐어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해 사진·영상·문서 등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애플의 에어드롭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다만 에어드롭이 애플 기기 간 폐쇄적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개방형 전략을 통해 사용자 접근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에 갤럭시 S26 시리즈가 전열되어 있다. /뉴시스

이번 기능 확대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파일 공유와 같은 일상 기능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려 생태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삼성전자는 앞서 구글과 협력해 퀵쉐어 기능을 안드로이드 기반 표준에 가깝게 통합해왔으며, 향후 타 제조사 기기와의 연동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갤럭시 중심 생태계’에서 ‘개방형 연결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생태계 전략 차이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ojia_tea@

암바렐라와 AI 영상분석 기술 협력

한화비전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와 손잡고 차세대 영상보안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비전은 지난 20일 암바렐라와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사는 차세대 시스템온칩(SoC)을 비롯해 AI 영상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비전의 첨단 영상 처리 기술과 암바렐라의 인공지능(AI) 역량이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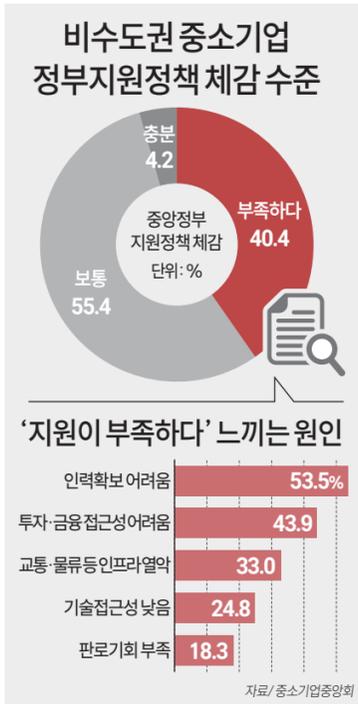
합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AI 영상보안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04년 설립된 암바렐라는 보안 카메라와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쓰이는 AI 처리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핵심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CVflow’는 AI 영상분석 분야에서 단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비전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영상보안 이외의 분야까지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지방에 기업·인재 유치해야... 中企업계, '3대 아젠다' 제안

중기중앙회, 공동과제 35개 제시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
中企 40% "정부 지원정책 부족"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격차 느껴"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재 지방 유입 촉진 (8개 정책과제), 산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15개 //), 인프라 개선(12개 //)을 3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과제 35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계가 참여한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통합 지원재정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부산울산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착공과 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강화, 경남지역에서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내놨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전환 지원 및 고도화, 자동차 및 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세종지역은 다테크 창업밸리 조성 등 지역 창업·벤처 여건 개선, 충남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충북지역은 오송바이오산단 내 바이오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지역은 지역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운영지원 근거 마련, 인천지역은 산업용품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서울지역은 국내 최대 인쇄 산업 집적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은 새만금에 중소기업 특화 RE100 산업단지 지정·지원, 제주지역은 제주형 LPG용기 순환사업 실시, 강원지역은 강원형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경영 격차가 6대4까지 벌어져 있고 실제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63%가 수도권과 경영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한 지방수도 성장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수도권, 비수도권 중소기업 772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인재 확보'와 관련해 가장 애로가 많다고 답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중 6곳(63.4%)은 수도권과 기업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5%)는 지방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인터, CVC 1호 펀드로 희토류 공급망 구축

국내 희토류 분리정제 전문기업에
80억 투자... 안정적 원료 수급 확보
동남아 거점 원료 조달 체계도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중(重)희토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기술투자자와 함께 25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호 펀드를 조성하고 첫 번째 전략적 투자처로 국내 희토류 분리정제 전문기업에 80억원을 투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단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술 협력과 신사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운용은 포스코그룹 내 벤처투자 전문사인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두 회사는 미래 성장 전략과 연계 가능한 유망 기술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중희토류 원료 수급 체계 확보에 있다. 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중희토류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성능 영구자석의 필수 소재로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산과 정제는

일부 국가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돼 왔다.

이번 투자 대상 기업은 분리·정제부터 금속화까지 일괄 공정 역량을 보유한 국내 희토류 분리정제 전문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중희토류를 순도 99.5% 이상의 산화물로 분리·정제하고 이를 다시 순도 99.9%의 금속으로 환원하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투자를 통해 중희토류 공급망 내 안정적인 원료 수급처를 확보하고 향후 사업 연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국내 투자와 함께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글로벌 원료 조달 체계도 다진다. 말레이시아 전문기업과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분리정제 합작사업을 추진해 환경 친화적 채굴

및 안정적 생산 체계를 검증한 뒤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오스 희토류 분리정제 사업에도 참여해 동남아 전역으로 원료 조달망을 넓혀 나간다.

이를 통해 동남아에서 확보 가능한 희토류 분리정제 제품은 연간 약 4500톤, 현 국제 시세 기준 약 2억30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 추가 투자를 단행해 생산 능력을 1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동남아시아에서 확보한 원료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미국 현지 기업 리엘리먼트(ReElement)와 협력해 연산 3000톤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2027년 하반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원관희 기자 wkh@

기보 민간 기술거래 기관 최대 400만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으로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게 건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성장 정체 '지역특구' 새로운 돌파구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정체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이중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악재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해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해 1500만원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LG엔솔, '전고체 배터리'로 로봇·UAM 체계 공략

2029년 '혁신계 전고체 배터리'
2030년 '무음극계' 상용화 목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내세우며 적용 시장 확대와 생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지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도심항공교통(UAM)체계까지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량 생산과 안정성이 중요한 전기차 시장에는 '혁신계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2029년 상용화를 추진하고, 공간 제약이 크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 요구가 높은 휴머노이드 로

봇 등 차세대 애플리케이션과 항공용 UAM에는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음극계 방식은 이론적으로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로봇의 구동 시간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단일 시장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산업별 요구 조건에 맞춘 세분화 전략을 꺼내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최대 장벽으로 꼽히는 것은 높은 제조 비용과 공정 복잡성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해결할 핵심 해법으로 건식전극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기용매 건조 공정을

을 생략하는 건식 공법은 설비 투자비와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 시간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도 배터리 생산 전반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건식전극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 450건 이상 출원하며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산급 건식전극 제조의 핵심인 '건식전극 섬유화도 및 인장 강도 개선 기술' 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물질 입자 크기와 상관없이 양극과 음극 모두 적용 가능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적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양극 건식공정까지 아우르는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혀가고 있다. 전



LG에너지솔루션 전고체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격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건식전극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관계자는 "최근 로봇, UAM 등 신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상용화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화재

당신이 딱 이다

“일이 재미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즐겁게 삼성화재 RC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성하 RC -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의 그 능력이면
삼성화재RC가 '딱'입니다



당신이 딱
삼성화재RC를 더 알아보세요

K-콘텐츠 커졌는데 유통은 뺏겼다... 국내 OTT 입지 '흔들'

BTS 컴백공연, 넷플릭스 생중계 토종 OTT, 인프라·자본력 부족 해외 플랫폼, 유통 주도권 가져가 국내 플랫폼 간 연합 등 대안 제시

넷플릭스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글로벌 OTT의 라이브 콘텐츠 장악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K팝 대표 IP가 초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실시간 콘텐츠로 소비되면서 국내 OTT의 입지는 오히려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연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 BTS라는 초대형 IP, 글로벌 동시 송출이라는 흥행 요소를 모두 갖춘 이벤트였다. 그러나 정작 국내 플랫폼은 이 무대에 참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내 OTT가 콘텐츠 제작을 넘어 라이브 유통 경쟁에서도 사실상 뒤쳐져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OTT 경쟁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포츠와 콘



(왼쪽부터) 브랜드 리그 넷플릭스 VP, 김현정 빅히트 뮤직 VP, 유동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대표, 개럿 잉글리쉬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일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사전 미디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

서트, 팬 이벤트 같은 라이브 콘텐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가입자를 묶어두는 힘이 강하고, 플랫폼 기술력과 동시 접속 처리 능력까지 함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스포츠와 각종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역량을 키워왔고, 이번 BTS 공연으로 K팝 라이브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반면 국내 OTT는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로컬 중심 가입자 구조에 머물러 있는 데다 초대형 라이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프라와 자본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에서 기획되고 소비 기반이 형성된 콘텐츠조차 글로벌 유통 단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특히 이번 공연이 공공성이 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 이미지와 관광 효과를 동반한 상징적 이벤트였지만, 콘텐츠 유통 성과는 국내 플랫폼이 아닌 넷플릭스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가치가 커질수록 국내 사업자는 제작과 흥행의 기반만 제공하고, 실제 글로벌 유통 주도권은 해외 플랫폼이 쥐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토종 OTT의 과제도 더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오리지널 드라마 경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라이브 콘텐츠를 감당할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유통 연합 구조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나와야 K팝이나 스포츠 같은 대형 콘텐츠 유통 협상에서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사례를 완전한 패배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라이브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만큼, 국내 플랫폼이 향후 공

동 중계나 비독점 유통, 기술 협업 모델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플랫폼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 구조와 유통 구조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은 K팝의 위상을 보여준 무대이면서 동시에 국내 OTT 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시험대였다. 콘텐츠 경쟁력만으로는 유통 주도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내 플랫폼이 관전자에 머물지 않을 전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국내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경쟁은 오리지널 드라마가 아니라 대형 라이브 콘텐츠를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송출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 계속 관전자에 머물면 K콘텐츠가 커질수록 해외 플랫폼 영향력만 더 커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삼성SDS, GPUaaS로 AI 추론시장 공략

(GPU 구독형 서비스)

B300 GPU, 데이터 병목 문제 완화 기업·공공기관 AI 전환 수요에 대응

삼성SDS는 자사 클라우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B300(블랙웰 울트라)' 기반 GPU 구독형 서비스(GPUaaS)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인 'AI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증가하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B300 GPU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E)를 탑재해 GPU당 288GB 메모리와 초당 8TB 수준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H100 대비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이 각각 3배 이상, 2배 이상 향상된 수준으로, 대규모 AI 모델 운용 시



삼성SDS는 자사 클라우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B300(Blackwell Ultra)' 기반 GPU 구독형 서비스(GPUaaS)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삼성SDS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문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SDS는 A100, H100에 이어 최신 GPU 기반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제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GPUaaS를 도입하면 기업은 초기 인프라 투자 없이 필요한 만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대용량 AI 모델 처리나 AI 에이전트, 영상·이미지 생성 등 고성능 서비스의 응답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삼성SDS는 올해 3분기 중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의 서버리스 AI 추론 서비스와 자동 분산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AI 학습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SDS는 GPUaaS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4대 과기원과 'AI 돛' 띄운다

지역 인재·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카카오가 4대 과기원과 손잡고 '카카오 AI 돛'을 출범하며 500억 원 기금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AI 인재·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이 23일 대전 KAIST 학술문화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과 'AI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비수도권 중심의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AI 산업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 AI 돛'이라는 추진 기구를 설립한다. 해당 조직은 AI 투자와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인재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에는 바람을 받은 돛처럼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조성한 500억 원 규모 AI 육성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과도 맞물리며 산학 협력 중심의 AI 확산 정책과 보조를 맞춘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정책적 연계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AI 돛'은 ▲과기원 중심의 현장형 AI 인재 양성 ▲카카오의 기술과 인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 지원 ▲지역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AX 프로젝트 등을 핵심 축으로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정기주총서 5개 안건 모두 통과

김희철 CFO 사내이사 선임

네이버가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그린팩토리에서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상정된 5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27기 재무제표 승인,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희철 네이버 CFO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네이버 CFO가 이사회에 합류한 것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업

계에서는 글로벌 투자 확대와 AI 사업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재무 전략과 투자 판단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CFO의 이사회 합류를 통해 재무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김이배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앞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관 개정에는 상법 개정 사항 반영과 함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 운영 체계와 지배구조 정비를 병행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주주총회 현장

/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도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하고, 네이버 플랫폼에서 축적한 AI 역량을 B2C와 B2B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며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파트너십 체계 개편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주요 협력사를 초청해 '2026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사들이 공동 프로젝트 성과와 협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매년 거래 규모와 사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

로 전략협력사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엠토스솔루션스와 씨에스피아가 우수협력사로 선정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조성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 부담 완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를 개편해 우수 협력사에 사업 참여 기회와 우선권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보험 면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판로 지원 등 기존 지원 정책은 유지된다. /김서현 기자

/김서현 기자

RIA 출시로 해외투자자금 유턴 기대 고환율·美 증시 변수에 복귀 신중론

RIA 계좌 개설 시작

해외주식 매도 뒤 국내 재투자
5월 말까지 전액 감면 적용
7월 말까지 80% 공제 혜택
세제 유인에도 자금이동 변수
실제 복귀 규모 더 지켜봐야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미국 주식 일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쌓인 수익에 대한 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익이 나도 세금 신고가 번거롭고 부담도 커졌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부는 국내로 돌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황모(40)씨는 당장 해외주식을 팔 계획이 없다. 그는 “환율이 높아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인데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미국 증시가 흔들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본다. 국내시장으로 복귀는 신중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되면서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RIA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근거로 상법을 예정대로 출시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증시 수급 개선과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고환율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속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운데 'RIA' 경로를 따라 이동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에 실제 자금 복귀 규모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투자자는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공제 한도는 전 계좌 합산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세액의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약 2180억달러로,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약 327조원에 달한다. 개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묶여 있는 만큼 RIA 도입이 실제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800만원에 사서 4800만원에 팔았다면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 수익 2750만원에 대해 약 6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RIA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간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단기적인 매도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서학개미 자금의 유턴 규모에 쏠린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미국 증시 조정으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버틸 때’라는 투자 심리도 적지 않아 제도 효과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제 유인 자체는 분명하지만 실제 자금 이동 속도와 규모는 환율과 글로벌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단기 성과보다 국내 증시의 중장기 수급 기반을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미래운용 “GTC서 메모리 위상 변화 확인”

GPU 넘어 메모리·패키징 주목 에이전틱 AI 확산에 중요성 부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역할 커져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 변화가 확인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3일 ‘TIGER ETF’ 반도체 산업 최신 트렌드 웹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번 GTC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 변화”라며 “과거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보조적 역할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AI 시스템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이전틱 AI는 계획, 실행, 점검을 반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간 결과를 저장하고 재호출하는 메모리 역할이 더

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맞물려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고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D램(DRAM) 공급도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후호적인 산업 환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글로벌 메모리 업체의 실적 개선 역시 업황 회복과 수요 확대 기대를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GTC를 통해 차세대 HBM 공급 역량과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부각한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HBM4 관련 기술 리더십과 함께, 추후용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AI 밸류체인 내 전략적 위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경쟁력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AI 메모리 핵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재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은 AI 확산에 따른 핵심 수혜 축으로서 중장기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운용은 “GTC 2026은 AI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GPU 경쟁을 넘어 추론 효율화·메모리 중요성 확대·패키징 혁신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TF운용본부 정의현 본부장은 “‘TIGER 반도체 TOP10 ETF’를 통해 관련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의 경우 ‘TIGER 반도체 TOP10레버리지 ETF’를 활용해 반도체 업황 반등 국면에서 수익 변동성을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허정윤 기자

KPMG, 차기 글로벌 수장에 게리 윙그로브

현 COO 글로벌 전략·운영 통합 주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게리 윙그로브(Gary Wingrove·사진)를 KPMG 인터내셔널의 차기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4년이다.

게리 윙그로브는 현재 KPMG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임하며, KPMG의 글로벌 전략인 ‘컬렉티브 스트라티지(Collective Strategy)’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운영 통합, 지역 클러스터링, 글로벌 투자 전략 정비, 전략적 제휴 확대, KPMG 딜리버리 네트워크(KDN) 성장 등 주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글로벌 조직 혁신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COO 이전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KPMG 호주 CEO를 역임하며 매출과 수익성, 인력 규모를 약 두 배로 확대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재편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통찰력과 실행력, 가치 중심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게리 윙그로브 차기 글로벌 회장 겸 CEO는 “전 세계의 뛰어난 KPMG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성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민첩성과 전문성,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PMG는 전 세계 약 140개국 27만6000명의 전문가들이 감사(Audit), 세무(Tax), 재무자문(Deal Advisory), 경영자문(Consulting)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증시 급등락에 반대매매 분쟁 증가

금감원, 신용용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담보비율이 흔들리면서 신용용자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관련 분쟁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용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담보비율이 흔들리며 반대매매가 빈번해졌고, 이에 따른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분쟁은 ‘사전 안내 미수신’이다. 투자자들은 “통보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문자·전화 등으로 사전 통지를 했음에도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번호 차단 여부 등 기본적인 수신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예상보다 과도한 매도 물량이다. 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 규모의 주식이 매도됐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는 약관상 담보평가 할인율이 적용된 결과다. 투자자는 신용거래 약관에 명시된 담보 산정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hatGPT로 생성한 신용용자·반대매매 상환에서의 강제 청산 압박 이미지.

담보비율 판단 시점도 혼선을 낳는다. 장중 기준으로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안심했다가, 장 마감 후 기준에서 미달로 판단돼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대매매 여부는 종가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를 손실의 ‘원인’으로 오해하는 인식도 바로잡았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까우며, 실제 손실은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장기 보유를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핵심 보유 종목이 매도된 사례도 있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해외여행·유학·송금 환전 가능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 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

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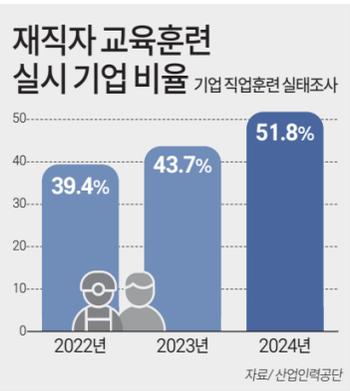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 외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직업훈련 실시 기업, 3년 연속 늘어 근로자 79% “직무능력 향상 체감”

산업인력공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
기업, 훈련비 지원 확대 등 주된
자기개발 지원은 9.6%에 그쳐



기업의 직업훈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10명 중 약 8명은 직무능력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직자의 자기개발 지원을 하는 회사는 10곳 중 1곳이 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율적인 자기개발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일 발표한 ‘2025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교육훈련을 경험한 근로자의 78.6%가 ‘직무능력 향상’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생산성 향상(58.0%), 동기부여 및 사기 제고(53.8%), 평판 제고(36.4%), 이직 방지(31.5%) 순으로 나타나, 기업 훈련이 인적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2022년 39.4%, 2023년 43.7%, 2024년 51.8%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기업 주도 훈련은 확대되는 반면, 개인의 자율적 역량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인지도는 59.6%, 활용 비율은 21.7%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만 기업들은 훈련비 지원 확대(51.1%), 시설·장비 지원(48.2%), 인력 공백 지원(45.3%), 행정절차 간소화(38.1%)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는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기업의 훈련 투자와 실적 등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공표 결과는 2024년 기준 4500개 기업 표본의 훈련실태를 2025년 하반기 조사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지은행’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 지원

농어촌공, 애로해소·효율화 총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재의 영농 진입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그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또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산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30여 헥타르(ha)의 농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농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경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며 청년농의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가길 원하는 청년농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먼저 스마트팜 온실 난방 시설을 유류 난방에서 전기 난방으로 전환했다.



전남 나주에 설치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시스템. /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팜에 전기 난방 시설을 설치 후 임대할 예정이다. 이에 청년농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간 1200만원 상당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 계약 종료 후 해당 스마트팜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농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올해도 청년농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현장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청년농 협의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자 미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인적기반”이라며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청년농이 우리 농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대상지 15곳 추가

이천 송말지구·괴산 금산지구 등 선정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지원
난개발 시설 정비·인구유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내 15개 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5곳은 ▲경기 이천 송말지구 ▲충북 괴산 금산지구 ▲충북 영동 어촌지구 ▲충북 진천 사석지구 ▲충남 당진 상오지구 ▲전북 고창 사거지구 ▲전남 장흥 진북지구 ▲경북 문경 불암지구 ▲경북 영덕 강구금호지구 ▲경남 김해 봉림지구 ▲경남 의령 가미지구 ▲경남 의령 대신지구 ▲경남 하동 신흥지구 ▲경남 함양 거면인당지구 ▲경남 합천 장대지구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및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

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효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15곳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선정한 문경, 합천 등 8곳도 포함됐다.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이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천, 진천, 문경, 영덕 등 4곳이다.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진천읍의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 악취 등으로 정

주환경을 해치는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한다.

향후 연계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 조성을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영덕군(강구금호지구)은 주거밀집지역에 주거와 혼재돼 악취,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가공 공장을 인근 농공단지로 이전한다. 기존 시설이 있던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쉼터와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거지와 공업지의 효과적인 공간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금강 유역에 설치된 ‘보’를 찾아 녹조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

4대강 재자연화... 2028년까지 개선 목표

기후부, 낙동강 하류 4개 보부터 속도
금강산·영산강 등 2027년 이행 계획

정부와 환경단체가 4대강의 이른바 ‘재자연화’ 추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간 설치된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금강 등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부는 우선 여름철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류 4개 보부터 속도를 내기로 환경단체와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하되,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외의 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

리 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 방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연화 방안 민관 협력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참여에 충분한 시료와 조사 횟수를 확보해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녹조 문제 해소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논의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등대 주제 사진·그림·동시 공모전 진행”

해수부-항로표지기술원, 공모전 열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등대를 주제로 한 ‘등대해양문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등대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18일이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동시 부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모는 사진, 그림, 동시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등대와 바다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출품수는 사진 5점, 그림 2점, 동시 3점까지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사진은 제한이 없고, 그림은 초·중·고등학생, 동시는 초등학교생으로 제한된다.

수상작은 6월 26일 발표된다. 사진과 그림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장관상과 상금(사진 300만 원·그림 100만 원)이 수여된다.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행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경남도, AI 로봇산업 키운다... 4900억 들여 생태계 구축

4대 전략 31개 과제 발표

휴머노이드 전문 SI기업 육성하고 AI+로봇 전문 교육센터 등 추진

경남도가 2030년까지 총 49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감속기·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휴머노이드 로봇 시스템 통합(SI) 기업 등 전문 기업 40곳 육성, AI 로봇 인력 1만 2800명 양성이 골자다.

경남도는 '2030 AI 로봇 생태계 완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31개 과제를 담은 '로봇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조선·방산·항공·기계 등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봇 실증·확산, 로봇 산업 고도화, 물류 특화 성장, 인력 양성에 나눠 투자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국산 NPU 기반 초정밀 로봇 공정 지능화 실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SDR 정밀 제조 로봇' 개발이 핵심이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전장배선공정 자율화 현장 이미지

/경남도

다. 정밀 전장배선(Harness) 조립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자율화 기술 개발은 2027년 착수한다. 중대재해 고위험 현장의 원격제어 로봇 인프라도 구축한다.

산업 고도화 측면에서는 국내 로봇 기업의 96.4%가 중소기업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전문 SI 기업 육

성을 2028년부터 본격화한다. 80억원을 들여 고경량·고효율 액추에이터 모듈을 자체 개발하고, 김해에 143억원 규모 '중고로봇재제조로봇리퍼센터'를 구축해 2026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물류 분야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철도 등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배후도시라는 입을 활용하여 차별

화된 물류특화 서비스로봇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 특례도 지렛대다. 248억원을 들여 물류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을 2027년 완성하고, 10톤 이상 고중량 화물 이송 로봇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센터도 조성한다.

인력 양성에서는 기존 단순 로봇 조작을 가르치던 기존 직업훈련 센터의 한계를 넘어 '동남권 거점 AI+Robotization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해 휴머노이드 제어·피지컬 AI·디지털 트윈 등을 교육하며 2029년 완공 후 매년 500명씩 배출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핵심 제조 데이터와 실증 현장을 보유한 AI 로봇 생태계 완성의 최적지"라며 "글로벌 AI 로봇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 확정

포항시는 올해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102개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2026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학교 지원 사업을 심의해 총 15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진주시

1금고 농협, 2금고 경남銀 선정

경남 진주시는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경남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두 곳이 참가했다.

차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시 금고를 맡게 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창원시

중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창원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

2024년부터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재정·역량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종사자 5~300인 미만 중소기업 25개소를 선정해 연말까지 기업당 5회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취득을 목표로 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사천시

청·장년 1인 가구 실태 조사

사천시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70일간 '2026년 청·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9~64세 청·장년층 1인 가구와 해당 연령의 가구원을 포함한 위기 정보 입수 대상 가구다. 시는 필수 조사 대상 1042가구를 중심으로 기존 복지 대상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취약계층, 복지 인적 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가구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경북, SW기업 창업·해외진출 돕는다

청년 인재 지역 정착·사업화 지원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제공

경북도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 소프트웨어 성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까지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인재가 경북에서 창업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10개 팀 내외로, 선정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창업 초기 핵심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과 법인 설



경북 SW 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립 실무 교육,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북 소재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교육생과 수료생,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경북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저출산 대응 위해 단계별 지원

건강관리·정서 지원 등 통합 정책

경주시는 난임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출산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며 저출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다둥이 출산 가정 축하 방문 등 출산 단계별 체감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 양육 초기까지 이어지는 출산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단편적인 출산 장려금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관리와 돌봄,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준비 단계에서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양제를 제공한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 부부에게 비타민D와 코

엔자임Q10 등 2종을 연 1회, 2개월분 지급해 임신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이후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부와 영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관리, 양육 교육,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며, 고위험 가정은 최대 2세까지 지속 관리한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축하 방문을 실시하고 육아용품과 격려 메시지를 전달해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경주시는 출산 가정 대상 정책 안내를 병행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울산시, 소상공인 창업 거점 만든다

'로컬창업 타운 유치' 공모 선정

울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고유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로컬창업 타운은 지역의 유류자산을 활용해 로컬 창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소상공인 핵심 거점 공간이다. 창업 준비부터 교육·컨설팅, 사업화, 판로 지원,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 역할을 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울산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설 구축·운영을 맡는 중앙-지방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타운은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1층 다목적시설에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미디어 작업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공유형 창업 공간으로 조성된다. 신축 건물을 활용해 초기 구축 비용을 줄이고 즉시 운영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접근성, 공원·광장과 연결된 개방형 입지가 강점이다.

울산시는 이 공간을 단순 사무공간이 아닌 지역 자원과 IT,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시, 예비 유니콘 10개사 선정

고성장 기술창업기업 발굴

부산시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고성장 유망 기업 10개사를 '2026년 유니콘(Bunicorn)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뉴라이즌(이승욱) ▲라이브엑스(송정웅) ▲리솔(이승우) ▲소프트스퀘어드(이하늘) ▲슬래시비슬래시(정용재) ▲아이쿠카(방남진) ▲짐캐리(손진현) ▲크리스틴컴퍼니(이민봉) ▲티큐어(강현욱) ▲해양드론 기술(황의철) 등으로, 부산시는 이들이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장 맞춤형 지원



을 할 예정이다.

'유니콘(Bunicorn)'은 부산(Busan)과 유니콘(Unicorn)의 합성어로,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고성장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해 기존의 분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을 집중 투입해 부산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부산형 창업 지원 브랜드다. /부산=이도식 기자

카다이프·얼려 먹는 젤리... 맛 넘어 '다양한 식감' 즐긴다

식감 중심 제품개발·차별화

노티드, '두바이 도넛' 라인업 확대
자담치킨·버거킹, 바삭함 강조 메뉴
편의점, 젤리 매출 두 자릿수 증가
스타벅스, 공기주입 '에어로카노'

최근 식품·외식업계에서 '식감(Texture)'을 앞세운 제품들이 잇달아 흥행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맛을 넘어 바삭함, 쫄득함, 부드러움 등 다양한 질감을 경험하는 텍스처 중심 소비가 MZ세대의 새로운 미식 기준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두쫘쿠'를 시작으로 '얼려 먹는 젤리', '버터떡' 등 바삭하거나 쫄득한 식감을 강조한 먹거리가 잇따라 주목받는 가운데, 커피 업계에서는 미세한 거품층을 더한 '공기 주입 커피'까지 등장했다. 식감 트렌드가 디저트를 넘어 음료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는 두



노티드 두바이 도넛 라인업. /노티드

바이 디저트를 재해석한 '두바이 도넛'을 선보이며 카다이프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도넛의 쫄깃함을 결합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초코 두바이 도넛'은 시리즈 내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고, 이후 헤이즐넛·피넛버터 등 견과류를 활용한 신제품



자담치킨 부슬랭. /자담치킨

까지 추가되며 라인업이 확대됐다. 신제품 출시 직후 판매량이 단기간 급증하는 등 소비자 반응도 빠르게 확산됐다.

이같은 흐름은 특정 제품을 넘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두쫘쿠 자체의 화제성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카다이프를 활용한 바삭한 식감 디저트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유지하며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라는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얼려 먹는 젤리 열풍도 식감 소비 확

산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젤리를 냉동해 먹는 간단한 방식만으로 기존의 말랑한 식감을 깨고 바삭한 식감을 구현하면서 M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편의점 젤리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유통업계는 관련 프로모션과 IP 협업을 통해 수요 선점에 나섰다.

외식업계 역시 '바삭함'을 차별화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담치킨은 라면 크럼블을 입힌 '부슬랭'을 출시하며 새로운 식감 경험을 강조했고, 버거킹은 '더 크리스토' 시리즈를 통해 치킨 버거의 바삭함을 강화하며 판매 비중을 끌어올렸다. 식감 자체가 메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셈이다.

텍스처 경쟁은 커피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커피 업계에서는 아메리카노에 공기를 주입해 미세한 크림층을 형성한 '공기 주입 커피'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브랜드별로 '에어로카노', '에어폼 아메리카노', '에어리 아메리카노' 등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쫄

쫄한 크림 층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보인 '에어로카노'는 출시 7일 만에 100만잔 판매를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아메리카노와 동일한 칼로리로 라떼 같은 부드러움을 구현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요인으로 꼽힌다. 이후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2000원대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확대에 가세했다.

'맛의 시대'를 넘어 '식감의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저트부터 음료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텍스처 중심 소비는 향후 식품·외식업계 전반의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맛뿐 아니라 씹는 소리, 질감, 목넘김까지 포함한 '경험'을 소비한다"며 "식감을 중심으로 한 제품 개발과 차별화 경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테조 국제공항'서 파리바게뜨를 만나다

캄보디아 프놈펜 신공항 입점으로
해의 7번째 파리바게뜨 공항 매장 선보여
여행객에 K-베이커리 브랜드 경험

파리바게뜨가 캄보디아 프놈펜 신공항인 테조 국제공항(Techo International Airport)에 매장을 오픈했다.

파리바게뜨는 공항 매장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4개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등 동남아 주요 공항에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 신공항 입점으로 해의 7번째 공항 매장을 선보이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공항 입점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객에게 K-베이커

리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현지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계획이다.

테조 국제공항은 지난해 9월 개항한 캄보디아의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1단계 개항한 현재 연간 13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다. 관광 산업 성장과 함께 외식·베이커리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테조 국제공항은 글로벌 여행객이 유입되는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향후 단계적 확장을 통해 캄보디아 관광 및 물류 산업은 물론 인도차이나 반도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테조 국제공항점(TIA점)'은 공항 도착장에 위치해 국제선과 국내선 도착 승객뿐 아니라 공항 방문객

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매장 규모는 약 227㎡(약 68평), 54석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매장에서는 이동 중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베이커리와 커피, 식사 대응 메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신선하게 구운 다양한 빵과 페이스트리, 시그니처 케이크와 디저트, 커피와 음료 등을 제공해 여행객들이 간단한 식사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파리바게뜨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현지화 전략과 K-베이커리 브랜드 경쟁력을 결합해 차별화된 제품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맛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오 K-스파이시 샌드위치', '스파이시 불고기 랍', '스파이시 김치 페이스트리' 등 현



캄보디아 테조 국제 공항에 오픈한 파리바게뜨 전경. /SPC

지화 메뉴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미니 초코칩 트루스트', '스트로베리 요거트 크림 케이크', '크랜베리 치킨 랍 샌드위치' 등 대표 인기 제품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K-베이커리의 맛과 품질을 전하고 있다.

하나리(Hana Lee) 파리바게뜨 AMEA(아시아·중동·아프리카) 본부장은 "테조 국제공항점 오픈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고객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파리

바게뜨가 고객들의 여행 경험 속에서 편안한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2021년 캄보디아 현지 파트너사 HSC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4개 매장을 열었다. 또한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몽골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720여 개 해외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갱년기 여성건강 안심 브랜드 '화애락'"

KPEI 갱년기케어 건기식 부문 1위

정관장 갱년기 여성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이 '2026년 제13회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KPEI)'에서 갱년기케어 건강기능식품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마케팅협회와 소비자평가공동주최한 구매안심지수는 전국 9만 5000여 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구매 경험에 기반하여 브랜드 신뢰도와 안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격이나 인지도를 넘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한 신뢰와 재구매 의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수상은 '화애락'이 국내 갱년기 여성건강 시장에서 '믿고 선택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화애락'은 정관장이 35년간 축적해 온 여성건강 연구를 토대로 탄생한 브랜드다. 출시 이후 약 20년간 550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2025년에는 '성인 여성건강기능식품 U&A 조사'에서 브랜드 상기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관장이 엄격한 품질 관리와 6년근 홍삼 중심의 과학적 연구 체계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온 점은 브랜드 신뢰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정관장 '화애락'의 대표 제품인 '화애락 진 토탈솔루션'은 갱년기 여성의 복합적인 건강 고민을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으로 정관장 6년근 홍삼과 'KGC여성건강특허조성물'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사프란 추출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등 다양한 부원료를 더했다.

'화애락 후 활력포커스'는 갱년기 이후 활력과 관절 및 근육건강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제품으로 정관장 6년근 홍삼에 'KGC여성건강특허조성물'과 마그네슘 등을 배합했다. /신원선 기자

델몬트, 28년간 'K-BPI' 주스부문 1위

2008년부터 '골든브랜드' 획득
인지도·고객 충성도서 높은 평가

롯데칠성음료의 주스 브랜드 '델몬트'가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Brand Power Index, K-BPI)' 주스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올해 28번째를 맞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개발한 브랜드 관리 모델이다. 국내의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재 등 총 277개 산업군을 기준으로 전국 1만 3500여 명의 소비자와 1대 1 개별 면접 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평가한다.

델몬트는 치열한 국내 주스 시장의 경쟁 속에서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8년 연속 1위를 지켜왔다. 2008년부터는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델몬트 주스. /롯데칠성음료

주어지는 '골든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델몬트는 '주스의 정통성'과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연상되는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랜드 인지도 항목인 최초인지, 비보조인지, 보조인지와 충성도 항목인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장 보고 '티빙'도 보고

'쓱7클럽' 혜택... 브랜드 캠페인

SSG닷컴은 장보기 적립에 OTT '티빙'을 결합한 멤버십 '쓱7클럽' 혜택을 알리기 위해 '쓱티빙'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장보기와 티빙 보기를 한번에'다. 월 3900원에 장보기 상품 7% 고정 적립과 티빙 콘텐츠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캠페인은 쓱7클럽 마스코트 '쓱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쓱이는 7% 적립 혜택을 상징하는 '7일 클로버'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3D 형태의 쓱이가 캠페인 영상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가입 시 제공되는 3개월 구독료 환급 이벤트로 쇼핑과 콘텐츠 혜택을 부담 없이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에이피알, 디바이스·화장품 ‘투 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 출시 ‘메디큐브’ 앞세워 해외 진출 생산·기술력 내재화에 중점

K뷰티 대표 주자 에이피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에 강점을 쌓아 온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망 확대를 병행한다.

2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최근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부스터 프로 X2는 이중 기능성을 갖춰 에너지 전달력을 높이고 화장품 흡수 효율성을 개선했다.

기기 표면에 설계된 네 개 전극이 피부 표면은 물론 보다 깊은 피부층에 에너지를 침투시킨다. 기존 핵심 기능 4가지에 신기능 3가지를 추가해 총 7가지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듀얼 모드’는 기기 표면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모드를 동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

시 구현하는 신기술이다. ‘마스크 모드’ 역시 새로운 진동 유형과 주파수를 적용한 것으로 시트형 마스크팩 사용 시 활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모드’는 뷰티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기기 사용 시간, 개인 피부 고민 등을 복합 설정하면 최적의 사용 방법을 제안한다. 또 각 모드별 강도는 기존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대표 제품 ‘토너패드’ 제품군 /에이피알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려 피부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기존 브랜드 주력 제품 ‘부스터 프로’ 출시 후 약 2년 만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의료기기 1종도 내놓을 예정이다. 자체 개발 및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관련 전임상, 임상,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에이피알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뷰티 디바이스’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부스터 프로의 경우, 2021년 첫 출시 후 2023년에는 국내 시장점유율 32%를 기록하며 해당 시장 1위에 올라섰다. 이후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600만 대에 달한다.

에이피알은 이처럼 뷰티 디바이스 성장세를 확보한 가운데, 스킨부스터 등 화장품 사업을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K뷰티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며 해외 현지 유망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해에도 글로벌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등에서 외형 성장을 이뤄내는 한편, 기타 지역에서도 세자릿수의 실적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2025년 4분기 기준, 미국 매출 2551억 원, 일본 매출 690억원, 기타 지역 매출 1188억원 등이 집계된 가운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70%, 290%, 191% 커진 규모다.

올해는 K뷰티 신흥국인 유럽, 인도 등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정통 뷰

티 강국 유럽에서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를 통해 현지 공략에 나선다. 인도에서는 인도 최대 뷰티 플랫폼 나이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에이피알은 해당 지역 모두에서 우선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판매를 시작한다. 피부 관리 기초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들로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고 콜라겐, PDRN 등 고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 수요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뷰티 디바이스뿐 아니라 화장품 부문에서도 에이피알은 생산 및 기술력 내재화에 중점을 둔다. 앞서 경기 평택 소재 에이피알팩토리 제3캠퍼스는 차세대 성분인 PDRN 소재 사업을 위한 생산기지로 알려졌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이번 부스터 프로 X2는 기존 뷰티 디바이스의 기술력과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홈 뷰티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개인 맞춤형 뷰티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송도캠 사망사고, 재발방지 총력” 삼성바이오로직스, 벡터 제작 내재화

2공장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 사망 “안전 관리 시스템 원점서 재확인”

셀트리온은 23일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 2공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과 사고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셀트리온 인천 송도 2공장에서 캐노피 보수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 협력 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

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협력 업체 근로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밝혀질 사고 원인이나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유가족분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관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향후 사고가 재발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경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셀트리온은 “사고 당시 사전 안전 절차와 장비 점검은 마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 중에 있다”며 “모든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확인하고, 캠퍼스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전수 점검하는 등 안전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올해 3월 초 SK바이오사이언스 新 사옥 송도 글로벌 R&PD 센터를 방문한 IDT 바이오로직스가 셀리 최 대표(아랫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 및 주요 경영진들이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아랫줄 왼쪽부터 여섯 번째) 및 주요 경영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사 자회사 IDT, MSD와 백신 계약

에볼라 백신 생산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기업 MSD와 진행 중인 에볼라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회사 IDT 바이오로직스(IDT Biologika)와 생산 협력을 강화한다. IDT 인수 이후 이어져 온 전략적 결합이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공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SD(미국 머크) 및 힐레만연구소와 추진 중인 2세대 자이르 에볼라 백신 개발과 관련, IDT와 원제 위탁 개발 및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제기구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 1월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개발비 지원을 발표한 후 이뤄진 후속 절차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파마 약국 전용 ‘옥치’ 론칭

양치 습관으로 치아 미백 관리

오스템파마가 약국에서 기능성 구강관리 브랜드 ‘옥치’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첫 브랜드 제품은 미백 치약이다. 일상에서 양치 습관만으로도 지속적인 미백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획했다.

옥치 미백 치약은 과산화수소를 3.0% 함유했다. 치아 미백은 치아 표면에 착색된 색소를 분해해 밝기를 개선하는 원리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는 색소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치아 미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핵사메타인산나트륨 성분을 함께 처방해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색소 재부착을 줄여 착색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옥치 미백 치약은 치과대학 임상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 동일 주성분을 적용한 시험에서 4주 후 치아 밝기 개선율 85.13%, 12주 후 개선 효과 확인 비율 100%를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론칭 기념 웨비나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벡터 제작 서비스 내재화를 통해 위탁개발(CDO)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O 서비스 영역 중 마스터세포은행(MCB) 생산과 벡터 제작 서비스를 내재화하고, 론칭 기념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웨비나는 ‘벡터 제작부터 임상시험계획서(IN) 제출까지의 가속화: 통합된 세포주 개발을 통한 9개월 개발 타임라인 달성’을 주제로 지난 19일 열렸다.

기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주 파트너를 통해 MCB 생산과 벡터 제작 서비스를 해왔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벡터 구축부터 IND 제출까지 전체 과정을 9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MCB 생산과 벡터 제작 서비스는 항체의약품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공정이다. 항체의약품은 동물세포에서 만들어진 특정 항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벡터는 해당 항체 제작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유전자 전달체다.

또 세포 내 항체 발현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조절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밀한 벡터 설계가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신약 후보물질 및 관련 데이터의 제3자 이관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차단, 개발기간 단축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 확보, 고객의 지적재산권(IP)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이세경 기자

LG화학, ‘통풍 신약’ 중국 임상3상 진입

상업화 위한 최종 단계 착수

LG화학은 통풍 신약 후보물질 ‘티굴릭소스타트’의 중국 라이선스를 가진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가 중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하며 상업화를 위한 최종 단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노벤트는 이번 3상 시험에서 600명의 통풍 환자를 모집해 기존 요산강하제인 페복소스타트와 비교 평가를 진행한다. 24주째 혈청 요산 수치 목표 달성률, 1년 장기 복용 안전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이노벤트가 중국에서 독자적

로 수행한 임상 2상 결과, 티굴릭소스타트 모든 용량군에서 페복소스타트 대비 유의미하게 더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 양호한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노벤트는 2011년 설립 후 다수의 항암 및 면역질환 신약을 개발해 상업화했고 최근 통풍발작 치료제 등 연계 신약 과제를 추가하며 통풍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성인 중 통풍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요산혈증 인구 규모는 약 1억 8513만 명으로 유병률은 17.7%에 이르며 실제 통풍 인구 규모는 약 2556만 명, 유병률 3.2%로 보고됐다.

/이청하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송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CJ대한통운, 이제혁 패럴림픽 동메달 포상식

CJ대한통운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동계 패럴림픽 스노보드 크로스(SB-LL2)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를 위해 포상식을 열고 노고를 치하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 본사에서 신영수 대표를 비롯해 정희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충식 서울특별시장애인스키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CJ대한통운



LG헬로비전, 부천대와 AI·웹툰 기반 인재 양성

LG헬로비전은 부천대학교와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교육과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AI와 웹툰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교육·창업·콘텐츠 분야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LG헬로비전



HLB에프앤비, 홍삼빌에 하얏트 언스크립트 유치

HLB그룹의 F&B 전문 기업인 HLB에프앤비는 위탁 운영 중인 '홍삼빌'에 글로벌 호텔 하얏트의 업스케일 컬렉션 브랜드 '언스크립트 바이 하얏트' 유치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언스크립트 바이 하얏트는 숙박 브랜드로, 개별 호텔의 고유한 개성과 지역적 특색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예약·멤버십 시스템을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HLB에프앤비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북미 부동산 개발 확대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현지 주요 개발사 및 정계인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이(EJM) 관계자들과 만나 뉴욕·뉴저지 지역 주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대우건설

인사

◆외교부 △동남아2과장 송승민 △중미과장 송재우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김종명

부음

▲김현수씨 별세, 박광식(전 민형배 국회의원 보좌관)씨 빙부상=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 발인 25일. 062-611-0000

LG생활건강, '키텐셜·어반버스터즈' 獨 디자인상 2관왕

iF 디자인 어워드서 3년 연속 수상
건기식 브랜드 2개 작품 본상 받아
고객 편의 높인 혁신 디자인 호평



어반버스터즈(왼쪽)와 키텐셜(오른쪽).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세계 최고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2개 작품이 본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다.

이 행사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3대 디자인 상으로 손꼽힌다. 올해는 총 68개 국가에서 1만여 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키텐셜, 어반버스터즈 두 작품으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키텐셜'은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단정한 로고, 아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친근하게 표현한 캐릭터, 중요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가독성 높은 제품 겉면이 조화를 이뤘다. 또 아이들이 섭취하기 쉬운 제형과 휴대·보관이 용이한 포장 구조를 통해 한층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어반버스터즈' 제품군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

력 개선 등 각 제품 경쟁력을 완성도 높은 캐릭터로 시각화했다. 특히 거리 예술(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은 글자 디자인도 선보이는 등 기존 건강 기능식품 형식을 파괴하고 기능성을 직관적으로 요구한 점이 돋보였다.

LG생활건강디자인센터 관계자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한 결과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2관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신뢰, 즐거움, 편리함을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계속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안정호 시몬스 대표, 7년째 환아 지원

삼성서울병원에 3억 쾌척
누적 기부금 21억 달해

안정호 시몬스 대표(사진)가 소아암 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7년째 보듬고 있다.

시몬스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치료비 3억원을 쾌척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진 기부금은 총 21억원에 달한다.

안정호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계가 위기에 빠지자 삼성서울병원에 3억원을 기부하며 나눔의 물꼬를 텄다.

시몬스의 행보 덕분에 소아암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230여 명의 환아들이 치료를 받고 꿈과 희망을 되찾았다. 시몬스의 기부는 2023년 삼성서울병원이 선보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의 빠른 정착에 기여했다. 같은 해 소아청소년 통합케어 서비스 출범에도 힘을 보탰다.



안강모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장은 "시몬스의 꾸준한 지원은 단순한 치료비 기부에 그치지 않고 병원 내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한 기부가 어느덧 7년째 이어지면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와 통합케어 서비스 출범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역할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아와 가족 곁에서 이들이 삶의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사랑나눔재단,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

파인트리움서 아동 28명과 진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의 중소기업 연합봉사단이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움을 방문해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를 열었다.

23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따르면 파인트리움 마당에서 진행된 미니 체육대회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신발 던지기, 줄바트런, 색판 뒤집기 등 19명의 봉사자와 28명의 아동들이 함께 다양한 게임에 참여해 활기찬 봄의 시작을 맞이했다.

중기업사랑나눔재단은 2019년 파인트리움에 운동화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물품 후원과 아동들을 위한 봉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1일 인천 부평 파인트리움에서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올해도 아동들을 위한 사랑 나눔에 중소기업계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사회공헌 활동 더욱 확대한다

중소·소상공인 종합 지원 체계 구축

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의 단순한 판로 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 장학 지원, 근로환경 개선, 문화·복지 확대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다. 특히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해 정책 제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23일 홈쇼핑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중소기업 사례 발굴과 홍보,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라는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자 및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및 후생 개선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돕는다. 문화·복지 영역에서도 지원을 이어간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홈쇼핑은 앞서 방송기술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방송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콘텐츠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에도 힘써왔다.

/김승호 기자

28~29일 상주·문경서 대회 개최

동아오츠카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상주시민운동장과 문경 영강체육공원에서 '2026포카리스웨트 상주 오픈테니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포카리스웨트가 주최하고 상주문경스포츠협회, 상주시테니스협회,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가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주시, 상주시체육회, 상주시의회, 문경테니스협회가 후원한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테니스 종목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대회에는 개나리부(여자 신인) 144팀, 챌린저부(남자 신인) 96팀, 국화부 64팀 등 총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포카리스웨트 썬캡과 보틀, 분발 제품을 비롯해 동아제약 박카스, 오쏘몰, 스킨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증정된다. 또한 동아에코팩이 협찬사로 참여하며,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디아도라가 용품 후원사로 참여해 보스턴 백과 라켓백 등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내달 '다락층고 상향 공청회' 개최

지식산업센터연합회, 공론의 장 마련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다락층고 상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5년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대중 세종대 교수가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ih@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릉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여의도의 썬법, 볼모로 잡힌 풀뿌리 출마자들



기고

안동현

前 국민의힘 윤리위원

6월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에는 봄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의 시계는 여전히 한겨울의 빙점 아래 멈춰 서 있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당 내부에서 거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공천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기구마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의도의 호사자들은 이를 두고 당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며 관전평을 쏟아낸다. 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소모적인 논쟁의 진짜 피해자는 여의도의 유력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의 상황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싸늘한 질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역 골목을 누비는 현장의 출마자들이다.

그들이 마주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내 사정도 사정이지만 우려스럽고 무책임한 것은, 광장으로 나가

장의 집회로 세를 과시하며 당을 흔드는 행태다. 진정한 혁신과 쇄신은 당의 시스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밖에서 당을 향해 던지는 돌팔매질은 득권을 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소모전 속에서 민생이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실물 경제와 지역 상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상인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의 눈에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출마자들의 짙은 좌절감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며 지역구를 누비는 예비후보들은 당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꿀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한 민생 공약을 준비해 다가가도, 중앙당의 파열음과 장외 집회의 소음이 모든 현장과 정책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 "집안싸움이나 먼저 끝내라"는 호통 앞에서, 지역의 내일을 논해야 할 후보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당의 리더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가. 아니면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때 오는가.

지금 현장의 출마자들이 바라는 것은 뻔한 여의도의 썬법이나 장외의 소음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과 중도 민심까지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이기는 선거 대응 전략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느 확실한 방향성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그 어떤 결정보다 현장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여의도의 썬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출마자들이 기댈 수 있는 베이스캠프부터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현장에서 피 흘리는 병사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채 치르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출마자들에게 외연 확장과 자유로운 목소리라는 최소한의 무기조차 쥐여주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의 패배 책임은 온전히 득권에 안주한 이들과 당을 분열시킨 이들의 몫이 될 것이다. 여의도의 멈춘 시계를 깨고, 과감한 선거대응전략으로 전국 현장의 시계에 당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에게겐 고민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

연체를 막는 금융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연체를 고민하던 시점, 금융회사에서 받은 것은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납부를 안내하는 문자였다. 몇 차례 안내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조정방안은 없었다. 그러나 연체가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그제서야 채무조정 안내가 시작됐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연체 이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상환 여력이 약화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은 이후에야 제도적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다.

최근 통계를 보면 채무조정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0·50대가 전체 채무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생활비 부담과 이자 비용이 동시에 커지면서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영향이다.

그럼에도 금융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는 상환을 독려하는 안내가 중심을 이루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반면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은 연체를 막기보다는 연체 이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정상 대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은 연체율과 고정이자여신비율 등을 핵심 관리 지표로 삼고 있어 사전적 개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채무조정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으로 기능하고 있고, 채무자는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은 이후에야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적자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비성대출 의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채무 취약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채무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미 늦은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이 해야 할 일은 연체 이후의 정리가 아니라, 연체 이전의 방지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4일 (음 2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60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4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49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현재의 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85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50년생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세요. 62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면 앞으로 평탄할 것입니다. 74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51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3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로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87년생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5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64년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53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5년생 상대와의 의견차이를 인정하세요. 77년생 동료와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중요한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54년생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66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78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오래된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55년생 선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7년생 희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음주를 삼가세요.



56년생 돈이 들어오나 반쯤반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57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보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69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81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8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2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9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71년생 아직 실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주변에 휘둘리기 보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격안관화, 용기

속담 중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태도를 뜻한다. 신기하게도 중국의 병법 36계에도 같은 전략이 있다. '격안관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강 건너편의 불을 구경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36계에서 말하는 강 건너 불구경은 고도의 전략이다. 이 전략의 본질은 함부로 개입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하라는 것이다. 이 전략을 명리학 관점으로 보면 힘겨운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다스려야 하는지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환경이나 스트레스 혹은 타인의 시선을 명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한다. 적당한 관성은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지만 그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른다. 가족 사이의 불화, 직장에서의 경쟁, 친구 사이의 갈등이 그런 일인데, 모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팔자학에서는 타인의 운까지 대신 짚어줄 수는 없다고 본다.

각자의 사주에는 각자의 흐름이 있는데 선불리 끼어들면 오히려 불길 이 옮겨붙는 일이 생기곤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정을 앞세워 즉각 대응하면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이 크다. 바로 불길에 달려들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격안관화 전략이다.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불길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운의 흐름을 잡아타고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은 날마다 크고 작은 불길과 마주친다. 그런 때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강을 건너야 하는지 하는 것도 용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 | | | | | | | |
|---|---|---|---|---|---|---|---|
| 7 | 3 | 8 | | 5 | | 6 | 1 |
| | 1 | | 3 | | | | |
| 6 | | | 4 | | | 9 | |
| | | 4 | 7 | | | | 2 |
| | | 1 | | | 6 | | |
| 2 | | | 6 | 3 | | | |
| | 2 | | 3 | | | | 6 |
| | | | 4 | | 2 | | |
| 8 | 6 | 9 | | 5 | 1 | 3 | |

| | | | | | | | |
|---|---|---|---|---|---|---|---|
| 4 | 6 | | 5 | | | | 3 |
| | | 5 | | | 2 | | 1 |
| | | | 9 | 6 | | | 4 |
| | 2 | | | | 8 | | 7 |
| | | 4 | | | 3 | | |
| 7 | 8 | | | | | 5 | |
| | 5 | | 9 | 7 | | | |
| 2 | | | 6 | | 1 | | |
| 6 | | | | 5 | | 7 | 9 |

| | | | | | | | |
|---|---|---|---|---|---|---|---|
| 8 | 1 | 9 | 2 | 6 | 7 | 9 | 8 |
| 2 | 8 | 7 | 1 | 9 | 6 | 5 | 9 |
| 9 | 7 | 6 | 8 | 5 | 2 | 2 | 1 |
| 6 | 8 | 2 | 9 | 1 | 9 | 7 | 2 |
| 7 | 9 | 2 | 8 | 1 | 2 | 6 | |
| 2 | 9 | 1 | 6 | 2 | 7 | 9 | 8 |
| 8 | 6 | 8 | 1 | 7 | 2 | 9 | 9 |
| 9 | 2 | 9 | 8 | 6 | 6 | 1 | 7 |
| 1 | 9 | 7 | 9 | 6 | 2 | 8 |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77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981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땅속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소 점검 서울시 땅꺼짐 사고 미리 막는다

명일동 지반침하사고 1년 맞아 예방·대응·제도개선 등 대책 강화 GPR 탐사 확대, AI 신기술 도입 노후 하수관로 총 1000km 정비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1년을 맞아 예방·대응·제도 개선을 담은 지하안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GPR 탐사 확대와 관측망 구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반침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히는 GPR 탐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관측망과 AI·ICT 기반 신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피해 시민에 대한 보상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올해 지하 공동을 조사하는 GPR 탐사 대상과 범위를 지난해 9595km에서 16423km로 약 1.7배 확대했다. 이를 위해 GPR 탐사 인력은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차량형 6대와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의 모습.

/뉴스

전동형 1대, 핸드형 3대 등 장비도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굴착공사장 주변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한다.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 점검한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30km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매년 200km씩 총 1000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땅속 센서로 지반 변동을 실시

간 측정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확대하고, AI·ICT 기반 계측 신기술 도입으로 관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관측공 40공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50공을 추가 설치하며, 2029년까지 총 25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영조물배상보험 보상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학교세무사' 도입... 세금·경제교육 강화

서울 초·중학교 60교에 세무사 배치
학생·학부모에 금융·세무교육 제공

앞으로 서울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금과 경제를 배우는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서울 초·중학교 60교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학교가 위촉한 '학교세무사'가 학교의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금·경제 교육과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

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연계해 운영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교와 중학교 40교다. 약 1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속 세금의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직업·진로 탐색과 관련된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세무사의 공공성을 실현하며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학교세무사 제도"라며 "세무사의 전문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금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2030년까지 25개 지방도 건설

도로건설에 5년간 총 1조6133억 투입
혼잡도 해소 등 대규모 도로망 확충
전력망 설치... 반도체 산업 지원도

경기도가 2030년까지 총 1조 6133억 원을 투입해 15개 시군 25개 지방도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담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23일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추진할 도로건설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2년간 시·군에서 건의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최종 25개 노선(85.52km)을 선정했다.

도는 먼저 사업성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확보된 도로를 중심으로 지방도 310호선 화성 문학~신리 1.67km 확장과 용인 역북~서리 3.06km를 추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형 도로'에는 포천 기지~길명(2.89km) 구간을 선

설하고 파주 영장~영장(2.85km) 구간이 선정됐다. 두 노선은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통혼잡 해소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평택 팽성대교~오성신리(3.77km) 확장 공사와 용인 덕성~목리(2.26km), 김포 고정~귀전(1.68km) 구간 신설공사가 확정됐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전력망 도로 공동건설' 사업의 핵심 노선으로는 지방도 318호선 구간의 이천 금당~신필(3.19km), 이천 수산~행죽(3.82km), 용인 독성~백봉(5.53km), 용인 백암~설성(9.76km) 등이다.

도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도로 건설 단계부터 전력망을 설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에 전력을 신속 공급하고도 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3월 학력평가 실시... 통합사회·과학 첫 출제

오늘 전국 고등학교 대상 학평 시행
고1·2, '2028 수능 개편안' 첫 적용

오늘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고3에게는 올해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고1·2에게는 2028 수능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 17개 시도 1948개교에서 약 122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대학수능능력시험 적응력 제고,

진로진학 지도 자료 제공을 위해서다.

고3은 2022학년도부터 이어진 통합수능 체제 아래 마지막 수능을 치르는 학년이며, 고1·2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수능 개편안을 처음 적용받는 학년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월 학력평가는 고3은 현행 통합수능 체제로, 고1·2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틀로 각각 치러진다.

고3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반면 고1·2는 2028 수능 개편안의 틀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고2에게는 탐구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처음 출제되는 동시에, 2028 수능 실제 시험범위가 처음 적용되는 시험인 셈이다. 고1·2의 사회·과학탐구영역은 국어와 수학처럼 상대평가로 치러지며,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성적 이 산출된다.

고1의 경우, 이번 시험은 전국 단위 상대평가를 처음 경험하는 시험이다. 시행 시기상 모든 영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된다. 중학교까지 절대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받아온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처음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진 기자

경희대, 교육·연구·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

경희대학교가 대학 내 교육·연구·행정 데이터를 통합한 'K-DX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23일 경희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은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희대는 이를 통해 경영정보 시스템을 넘어 중역정보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수준의 활용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K-DX 시스템은 교무, 학사, 산학, 연구 등 교내 주요 자료를 수집해 143개의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총장과 부총장 등 최고경영진의 전략 수립은 물론, 부서장과 학·원장 등의 주제별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경희대 소속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0 | 해질 / 18:47

3월 24일(화)
음력 : 2월 6일

수도권 날씨
7 ~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0/16
- 동두천 2/17
- 가평 0/17
- 양평 1/18
- 용인 6/16
- 평택 3/18
- 수원 6/16
- 인천 7/14
- 파주 1/15
- 서울 7/17
- 백령도 5/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자국민들에 주의령... "이란 연계 단체 공격 가능성"
▲日정부, 유가 급등 대응 위해 예비비 7조5000억 원 지출 방침

/사진 뉴스

▲파네타 전 美 국방 "트럼프, 이란전 진퇴양난... 동맹국 불참은 자업자득"
▲젤렌스키 "美와 러우전쟁 종식 후속 논의 가능... 외교 작동 중"

▲IEA "중동사태, 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비축유 추가 방출 협의"
▲中, 다량 위성 탑재 운반로켓 해상 발사 성공... 상업우주 활동 본격화



카다이프·얼묵 젤리
단순한 맛 넘어
식감 즐긴다
L1



Life

에이피알
디바이스·화장품
'투 트랙' 공략
L2



100+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후2시 장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주최 : metro·metro경제

안갯속 글로벌 경제... 증시·부동산·절세 '생존전략' 총망라

중동발 리스크에 글로벌 경제 불안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다뤄
금융 역할 짚고, 실물경제회복 모색
증시전망, 부동산·절세 노하우까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
고 있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
며, 경제성장률에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지난 20일
기준 배럴당 112.19달러를 기록했다. 중
동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27일
(72.48달러)과 비교하면 50% 이상 상승
한 수준이다. 상승한 국제유가는 생산비
와 운송비를 자극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
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
준을 보였지만, 최근 유가 급등분이 충
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경제성장률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은 지난해 11월 경제성장률을 1.8%에서
올해 2월 2.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
는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
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
리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불
확실성과 자산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
략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
교수는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중동발 지
정학적 리스크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경기 흐름을 진단한다. 특
히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국 경제 성장 경로에 어떤 변수로 작
용할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융대
전환-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의 핵심 방
향'을 통해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금
융의 역할을 짚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적금융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와 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중심으로, 금융이 실물경제 회복과 자산
불균형 완화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 지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은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코
스피가 중장기적으로 6000선까지 도달
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현재와 같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기
준을 제시한다.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프로그램

| 시간 | 구분 | 프로그램 |
|-------------|-----------|--|
| 13:00~14:00 | 참가접수 및 등록 | ※VIP티타임: 13:30~14:00 |
| 14:00~14:20 | 축사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
| | 개회사 |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
| 14:20~14:40 | 강연 |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
| 14:40~15:00 | |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금융대전환-생산적·포용금융정책의 핵심방향 |
| 15:00~15:20 | |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증시전망과 투자전략 |
| 15:20~15:40 |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투자는 유효한가 |
| 15:40~16:00 | | 윤종연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지점 Gold PB팀장 : 부자들의 재테크 |
| 16:00~17:00 | 패널토론 | 사회: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사장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
위원은 '부동산 투자는 유효한가'를 주
제로 강연에 나서, 최근 정부가 1주택 중
심의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부동산 자산의 투자 가치와 향후 시장 흐

름을 짚을 예정이다. 윤종연 하나은행 G
old PB팀장은 부자들의 재
테크라는 주제로 절세 노하
우에 대해 강연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김영익 | 정운영 | 이승우 | 박원갑 | 윤종연 |
|---|--|---|--|--|
|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하나은행 도곡PB센터 Gold PB팀장 |
|  <p>김영익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글로벌 경기 흐름과 대한민국 경제 전망,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대응 방안을 짚는다. 발표 주제는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다. 세계 경제가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위기를 넘긴 뒤 금융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담고 있다.</p> <p>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올해 1.9% 성장 전망과 함께 수출·소비 흐름, 금리 하락 추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저금리 환경에서의 자산관리와 대출·저축 전략, 근로소득의 중요성 등도 알기 쉽게 풀어낼 계획이다.</p> <p>-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 -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 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증권 부사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p> |  <p>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포럼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인 '금융대전환'의 방향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으로 대표되는 주요 정책을 일상생활과 투자원칙 설계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한다.</p> <p>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금융권 자금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핵심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적극적인 정책금융 공급으로 금융소외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p> <p>정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금융대전환 시대에 맞춘 새로운 노후설계 및 부채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p> <p>-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대표 -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윤리과정 대표교수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대우교수</p> |  <p>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포럼에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p> <p>특히 미국·이란 갈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 인공지능(AI) 패러다임 변화, 기업 펀더멘탈, 국내 증시 수급 등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짚을 예정이다.</p> <p>먼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급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한다. 이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를 진단하고,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시장 영향을 전망한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구도와 반도체 업황도 함께 살펴본다.</p> <p>-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리캐피탈투자자문 이사 - 전 신용증권 애널리스트 - 전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원</p> |  <p>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설명한다.</p> <p>금리와 정책 변화 속에서 거대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함께 세계 개편에 따라 시장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주목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로는 거래 절벽, 거래세·보유세 논쟁, 전세대란 가능성, 돌돌한 한 채 지속 여부 등을 제시한다. 전세 물량이 줄며 전세소멸과 월세화 현상이 가져올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p> <p>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고가 1주택자 과세 등 현재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를 짚고 규제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수요자를 위한 갈아타기 전략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향도 안내한다.</p> <p>-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전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투자권유 자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p> |  <p>윤종연 GoldPB팀장(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지점)은 이번 포럼에서 부자들의 제테크에 대해 강연한다.</p> <p>윤 팀장은 부동산의 자산 운용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에는 국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이 일반적이었던 글로벌 자산으로 투자범위를 넓히고 장기 수익률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p> <p>또한 윤 팀장은 절세와 증여가 부자들의 핵심 재테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한다. 비과세 상품과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산가치 상승 이전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p> <p>윤 팀장은 "현금이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우량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한다.</p> <p>- 전 PB사업부 - 전 자산관리지원부 - 전 영업1부 PB센터</p> |

메트로 한줄뉴스



▲맨시티, 아스널 꺾고 5년 만에 카라바오컵 제패...통산 9번째 우승 /사진 뉴스시
▲손흥민 떠난 토트넘, 노팅엄에 완패...49년 만에 강등 위기

▲홍명보호,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
▲2명 제치고 골 넣어도 '도움'...달라진 K리그 규정, EPL·MLS는 어떻게?

▲MLB 최강 좌완 산체스, 필라델피아와 6년 1615억원 대형 계약 체결
▲김혜성, 시범경기 4할 타율에도 마이너행...매일 될 기회 주기 위해"